

2 특별 기획

“후마는 학문다운 학문의 초석을 놓는 일”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후마니티스 15년을 묻다
③ 조인원 이사장 대담

“#2011년 출범한 우리 대학교의 후마니티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신문은 15년이 경과한 지금,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묻는다. 지난 1회차에선 후마를 바라보는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번 회차에서는 후마를 설계하고 실행한 조인원 이사장(당시 총장)을 만나 15년 전의 상황을 회고해보았다.

※ 지면 제약으로 대담 내용이 편집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디지털 대학주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타 대학의 교양 교육이 폭넓은 지식 함양에 방점을 둔 것과 달리 후마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마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은 새로운 사색과 사유의 장을 여는 곳입니다. 학문 그 자체에 대한 근본을 묻고 탐하는 곳이지요. 그런 기대로 젊은 시절 대학 공부가 공명하고 살려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랐죠. 교수로 재직하게 됐을 때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전공 전업에 앞서 학문함의 진지한 마음 자세와 깊은 사색, 사유에서 오는 배움의 깊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성장으로 재입하면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학문함이란 무엇이고, 어떤 물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답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 사유의 깊이, 인식론과 방법론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정답을 찾는功夫가 아닌 학문함 그 자체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깊은 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후마를 설립하는 계기가 됐죠.

후마니티스칼리지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교양교육 전담 독립



지난 15일 우리신문은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과 후마니티스칼리지 15년의 의미를 두고 대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도연 대학주보 편집장, 조인원 이사장.

단과대학입니다. 단순히 교양 과정을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왜 단과대학이라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했는지, 당시 이사장님께서 구상하셨던 대학 교육의 본질적 전환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단과대학이라기보다는 지식의 지평을 연결하는 ‘칼리지’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우리대학은 다양한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출발점은 같다고 볼 수 있지. 넓게 보면, 인문학 과 과학의 공통 본모양 배우고 경험할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그런 이유에서 단과대학이 아니라 후마니티스칼리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전공 분야엔 문화원 방법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하지만 학문 그 자체를 넓게 볼 때 학문의 지평과 접근 방법,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 세계를 어떻게 전공 과정과 연결할 것인가는 문제는 전공 전업 전에 이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후마 과정은 여러 단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고, 쉬운 기본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문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과 철학을 담담하게 찾아 나설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후마를 설립하는 계기가 됐죠.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후마 설립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셨고, 구성원 각 의견공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도와 기구가 만들어진 후에에는 일정한 관심과 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후마 설립 전 이야기예요. 전공 차이로 교양교육에 관한 인식이 달랐어요. 학문함의 근본은 다 수는 없는 것인데, 인식 차이는 아주 오래도록 좁혀지지 않았죠. 지금도 만일 그렇다 싶긴 하지만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듯해요.

전공 분야엔 문화원 방법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하지만 학문 그 자체를 넓게 볼 때 학문의 지평과 접근 방법,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 세계를 어떻게 전공 과정과 연결할 것인가는 문제는 전공 전업 전에 이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후마 과정은 여러 단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고, 쉬운 기본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문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과 철학을 담담하게 찾아 나설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후마를 설립하는 계기가 됐죠.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요.

후마 출범 당시 설계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죠. 총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초대 학장님들이 40~50여 명의 교수님들이 1년 남짓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셨죠.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도 마다하지 않고, 타 대학이 부러워했던 훌륭한 교제도 만들었습니다. 안정된 후마도 후마 교육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래를 위한하는 불안전한 문명사적 국면은 어찌, 오히려 후마가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 대학가에 유래했던 창조적 과업에 도전한 것이죠.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 학습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후마니티스칼리지의 또 다른 특색의 축인 ‘실천 인문학’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국제사회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보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됐죠.

설립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적 실천임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천하는 후마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론과 실천, 학문과 실천, 이런 주제는 연결

하게 양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기억 속에,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엔 아담 스미스도 있고 카를 마르크스도 있었. 한 사람은 학문을 주로 한 것이고, 한 사람은 학문과 이에 관련된 실천을 병행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두 사상가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크죠. 삶의 현장에 나가 움직이는 것만이 실천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형태의 현장 학습과 같은 활동이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후마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지식외의 문제를 현장에 가서 리포트도 쓰고 봉사 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역 사회를 넘어 국제사회 현장, 다른 학문과 종교 발상지에 가서 어떤 사유와 인식, 활동이 왜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죠.

지구촌 곳곳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체험과 국제기부, 시민 단체, 기업, 연구소, 싱크 탱크에서의 경험... 그런 경험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일 거예요. 앞으로 대학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립자로서 구상했음에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기회, 기회와 위기 요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죠. 인간의 생존과 실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어요.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문명사적 국면은 어찌, 오히려 후마가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 대학가에 유래했던 창조적 과업에 도전한 것이죠.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 학습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후마니티스칼리지의 또 다른 특색의 축인 ‘실천 인문학’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국제사회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보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됐죠.

설립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적 실천임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천하는 후마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론과 실천, 학문과 실천, 이런 주제는 연결

3면에서 계속 →

특별 기획

2면에서 계속 →

또 다른 차원에서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미래 역량 기법’에 대한 학습 기회입니다.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미래,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사뭇 다르죠.

오늘의 현실적 기회와 도전에 조응하면서, 기후, 생태, 파괴적 과학 기술이 초래하는 유례없는 문명사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내는 일은 각자 생존과 실존의 문제가 걸린 과제입니다. 미래 세대에 주어질 도전과제는 인류사적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변화와 전환이 절실하고 절박한 이유죠.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문명사적 변화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아 내시는 후마의 생명력을 새겨줄 때야 합니다. 이 점을 함께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해요.

최근 서울과 국제 후마가 머무는 2개의 다른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들보다 학생들, 미래 세대가 시 시를 발명이나 기술에서 훨씬 앞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 왔으니까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안이 더 문제지요.

AI 발전 속도가 자살을 넘어오고 있죠.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년 내 퀀텀 AI 상용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도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 모든 일차와 파동의 초 미시 영역을 인류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난치병과 불치병 극복, 중력과 시공의 조작 가능성, 새

성,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인간적 감수성일 테죠. 그런데 그 감수성이 우리 모두 공감하는 ‘보편’인가 하는 물음은 심오한 과학적 물음과 잇닿아 있어요. 이와 학생들은 역으로 ‘과학의 주제’에 관한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주체는 인간이겠죠. 그런 점에서 과학이 중시하는 객관성, 보편 타당성이 갖는 인간 정신과 의식 세계에 덧붙여 있죠. 인문적 성찰과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서울과 국제 후마는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절박한 이유죠.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문명사적 변화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아 내시는 후마의 생명력을 새겨줄 때야 합니다. 이 점을 함께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해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립자로서 구상했음에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기회, 기회와 위기 요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죠. 인간의 생존과 실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어요.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문명사적 국면은 어찌, 오히려 후마가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 대학가에 유래했던 창조적 과업에 도전한 것이죠.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 학습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후마니티스칼리지의 또 다른 특색의 축인 ‘실천 인문학’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국제사회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보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됐죠.

설립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적 실천임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천하는 후마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론과 실천, 학문과 실천, 이런 주제는 연결

성,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인간적 감수성일 테죠. 그런데 그 감수성이 우리 모두 공감하는 ‘보편’인가 하는 물음은 심오한 과학적 물음과 잇닿아 있어요. 이와 학생들은 역으로 ‘과학의 주제’에 관한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주체는 인간이겠죠. 그런 점에서 과학이 중시하는 객관성, 보편 타당성이 갖는 인간 정신과 의식 세계에 덧붙여 있죠. 인문적 성찰과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서울과 국제 후마는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절박한 이유죠.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문명사적 변화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아 내시는 후마의 생명력을 새겨줄 때야 합니다. 이 점을 함께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해요.

최근 서울과 국제 후마가 머무는 2개의 다른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들보다 학생들, 미래 세대가 시 시를 발명이나 기술에서 훨씬 앞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 왔으니까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안이 더 문제지요.

AI 발전 속도가 자살을 넘어오고 있죠.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년 내 퀀텀 AI 상용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도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 모든 일차와 파동의 초 미시 영역을 인류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난치병과 불치병 극복, 중력과 시공의 조작 가능성, 새

성,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인간적 감수성일 테죠. 그런데 그 감수성이 우리 모두 공감하는 ‘보편’인가 하는 물음은 심오한 과학적 물음과 잇닿아 있어요. 이와 학생들은 역으로 ‘과학의 주제’에 관한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주체는 인간이겠죠. 그런 점에서 과학이 중시하는 객관성, 보편 타당성이 갖는 인간 정신과 의식 세계에 덧붙여 있죠. 인문적 성찰과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서울과 국제 후마는 그런 점에서 서로 연결되고 절박한 이유죠.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문명사적 변화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아 내시는 후마의 생명력을 새겨줄 때야 합니다. 이 점을 함께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해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립자로서 구상했음에도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기회, 기회와 위기 요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죠. 인간의 생존과 실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어요.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문명사적 국면은 어찌, 오히려 후마가 더 나은 시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 대학가에 유래했던 창조적 과업에 도전한 것이죠.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 학습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후마니티스칼리지의 또 다른 특색의 축인 ‘실천 인문학’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국제사회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보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됐죠.

설립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적 실천임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천하는 후마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론과 실천, 학문과 실천, 이런 주제는 연결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요즘 일부 국가에서 인간다운 지적 존재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UFO라고 하는 현상, 이전에 UFO라고 불렀던 것들이요.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에요.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 전체가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학문적 차원, 개인적인 시야와 시인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 폭력, 국가 차원의 전쟁이 왜 무엇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됐고,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면, 이론상으로 수많은 지적 존재가 존재해야 할 텐데, 모두 어디에 간 거냐라는 재밌는 질문

지난해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기념 인터뷰 이후 1년 만에 독자들께 만나드립니다. 그 사이 학자로서 관심사나 교육자로서 고민에



대담을 마친 후 이사장은 대학주보 기자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왼쪽부터 이원희 기자, 조인원 이사장, 권도연 편집장, 이자우 편집장. (사진=뉴유니캐이션팀 제공)

대학주보 71주년 창간주년

카메라로 QR 스캔 → '대학주보' 인스타 팔로우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khunews_jubo

다 많은 콘텐츠는 대학주보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